

“행복이란, 돈보다 가족과 건강”

전주시민들은 돈보다도 가족과 건강, 사랑이 행복을 느끼는 필요조건으로 손꼽았다.

전주시민 322명 중 216명 응답... '사랑' 뒤이어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전주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전체 응답자 322명 중 67%에 해당하는 216명이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사랑(27명, 8.3%) 웃음, 배려, 관계, 믿음, 꿈 등이 그 뒤를 이어 물질적인 것 보다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및 정서적인 가치들이 시민들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손꼽혔다.

이는 사회적인 지위나 성공, 지나친 부의 소유보다는 주거환경, 가족들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한 가

치로 여기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뜻으로, '성장위주, 개발중심' 보다 '사랑위주, 인간중심'의 행정에 중점을 두는 전주시의 시장목표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지난 14일 '제2회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전주' 폐막식에서 발표됐으며, 조사에 참여한 시민 322명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담은 사진들을 모아 만든 대형 걸개그림이 무대에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폐막한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국제생태문화협회 '로컬푸드'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 등 국내·

외 로컬 및 환경 운동가 50여명이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강연과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특히 상업자본주의와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대안을 '공동체성의 회복을 통한 경제의 지역화'로 꼽으며, 이를 위해 로컬푸드(Local Food) 이용, 지역 상품 사용의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화폐 사용, 기금 조성방안 등 지역경제를 살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조봉업 전주부시장은 폐막식에서 "행복지수 세계 1위인 덴마크는 시민 행복을 위해 150년을 투자했으니, 지금 전주시는 분명히 150년 전 덴마크보다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자산과 힘

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사람과 사람의 연대, 튼튼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행복도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2016 전주 사회적경제 박람회'도 이날 폐막식을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사람과 지역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종 체험 및 교육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생생히 전달하고, 팸매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호혜와 연대의 장을 마련한 화합의 한마당이 연출됐다.

/김영재 기자



따뜻한 밥상으로 사랑전하기 전주지원봉사센터는 지난 14일 어려운 이웃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상' 나눔활동을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했다.

오토바이 훔친 10대들 검거

심야시간 주택가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고교생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심야시간대 아파트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A(17)군과 B(17)군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날 밤 11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 앞에 주차된 C(40)씨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같은 고교에 다니는 이들은 오토바이 기종에 상관없이 시동을 걸 수 있는 속칭 '딸기'를 이용해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누범 기간 중에 또 강도짓 40대 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인재)는 지난 14일 누범기간 중 학원에 들어가 여성 원장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25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학원에서 여성 원장(30대)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입과 팔, 손·발목 등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마치 자녀의 학원 상담을 위해 학원을 찾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자신의 요구에 물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시

전주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확대 모집

23개 협약기업을 30개까지

전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 분야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주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 전주국방벤처센터는 전주시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 관련 사업 및 국방시장 참여를 희망하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

전주국방벤처센터는 지난 2009년 전주시와 캠퍼스종합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이현근)이 공동 설립한 국방산업분야 R&D자금·기술 및 경영지원 기관으로, 센터는 현재 23개인 협약기업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벤처센터는 협약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군 사업과 과제 발굴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 전반적인 국방사업과 지원과 국방기술품질원 및 외부 전문 기술 인력을 활용한 교육 및 기술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협약기업들은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시 버스 임차료 지원과 특허·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 지원, 기업인증, 홍보물제작 지원 등의 경영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영재 기자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전주시, 기초지자체부문 대상

페이스북·블로그 등 객관적 지표 최고 평가

전주시가 지난 14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회장 이수형)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블로그산업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 운영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SNS 대상 심사는 SNS활용지수(SNS)를 통한 정량평가(30%)와 신학계 전문가 평가(50%), 참여 기업·기관 내부 전문가 평가(10%), 누리꾼 투표 평가(10%) 결과를 종합해 이뤄졌다.

전주시는 기초지자체(시, 광역구) 부문에서 가장 높은 심사평가 점수를 받아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이번 전주시의 수상은 '대한민국 SNS 대상' 공모전에 처음 도전해

이밖에도 국방 분야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국방관련 기술자료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대상은 전주에 기반을 둔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또는 품목을 보유하거나 군수품 및 부품 국산화 개발 등 방위산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다.

센터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등을 거쳐 기업의 경영여건, 기술 활용도와 기술개발 여건 등 기술 수행능력, 사업성,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 검토해 협약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국방기술품질원 홈페이지(www.dtaq.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협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전주국방벤처센터(덕진구 유성로 67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전주국방벤처센터 관계자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국방벤처센터의 협약기업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거둔 성과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블로그(blog.jonju.go.kr), 페이스북(@jonju.kr), 인스타그램(@jeonju) 등 다양한 SNS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전주를 대표하는 SNS 페이스북은 4만8000명의 팬을 보유한 가운데 '좋아요', '댓글', '공유' 건수 등으로 측정하는 활성화율은 지자체 최상위권 수준으로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트위터 또한 팔로워만 6050명으로 폭넓은 소통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고 블로그 일평균 방문 횟수도 2000명에 이르고 있다.

김선경 전주시 시민소통담당관은 "홍보로 접근하기보다는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 SNS를 활성화 시킨 것을 심사위원들과 누리꾼들이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시민들과 상호 소통하는 시장 소통채널로 SNS를 적극 운영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SNS 대상의 공공부문 종합대상은 서울특별시청이 수상했으며 기업부문 종합대상은 비씨카드가, 광역지자체 대상은 전북도청 등이 수상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작은도서관 혁신 '가속화'

인문학강연 등 시민문화공간·평생교육시설로 정착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의 사랑방,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

전주시는 도시 전역에 분포된 작은도서관을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기 위해 그간 시립도서관 위주로 진행됐던 다양한 인문학강연을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작은도서관 11개관에서 '찾아가는 동네방네 인문학특강'을 진행해 그간 시립도서관 위주로 진행됐던 각종 강화를 지역주민들이 가까이서 10분 거리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서동아리가 활동하지 않는 7개 작은도서관에는 독서코칭 강사를 파견해 주민들이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4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는 시립도서관 보유도서를 매일 100권씩 대출해주는 순회문고도 운영한다.

시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재 기자

제13회 익산 천민송이 축제

백제왕도 익산으로 오세요~

10.28(금)~11.6(일) (10일간)

익산중앙체육공원